

금추일인 완고하고 어두우면서 지혜에 가까이 하려는 것은 마치 극자르 곡을 맛보는 것 같아서 비록 오래도록 친하고 익힌다 하더라도 오히려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
(법구경·우알품 234절)

東大新聞

구분: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북동로3가 26(2360-3492)
전화: 780-714 경부 경주시 석장동 707(23770-2037)
FAX: (02)279-1270

제 1171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나-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불기2539년) 4월 5일 (수요일)

등록금 차등제·예고제 농어촌 특례 입학 빠르면 96년부터 실시

본교는 국내 대학중 처음으로 수강과점과 과목별 특성에 따라 계열별로 등록금을 차등화하는 한편 4년간의 등록금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석구 총장은 지난 3월30일 등록금 차등제 및 예고제 실시와 농어촌 학생 특례입학, 영탁요원 조성을 계획했다고 말하며 빠르면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차등제는 계열별로 시설비율과 인건비 등의 항목을 원가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기본등록금을 정한뒤 학생들의 수강하는 과목수와 과목별 특성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 하는 제도이다.

또한 등록금 예치제는 4년동안의 등록금을 미리예고함에 따라 학부모로 하여금 등록금 마련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4년간의 등록금을 분할 또는 일시납부 특혜 받고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자율 만큼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96학년도 신입생 입시요강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각 계열별 표준등록금의 원가계산을 위해 등록금 합리화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총장 김생빈·토목공학)가 각 처실장 및 연구위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연구작업에 들어갔다.

성용길 (화학) 기초실장은 "농어도를 10월달에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그 후 공청회를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등록금차등제와 예고제를 실시하고 연구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97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총장은 내년부터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입학정원의 2%에 해당하는 98명의 학생을 전과제에 걸쳐 농어촌특례입학생으로 선발, 수업료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는 한편, 장애인 특례입학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이밖에 송총장은 본교 건학이념 구현의 한 방안으로 수도권 일대에 새로운 영탁요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매대학과 학점교류 인정 전공·교양과목 유사시 학점취득

국제부 (부장=이원우·정보관리학)는 올 9월 중순부터 자매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자매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면 최대 1년간 휴학없이 그 학교에서 얻은 학점은 인정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해외에서 이수한 학점은 국제부에서 소속 학과장의 확인과 과목인정 확인을 받아 학과과에 학점인정을 요청하게 된다.

학점인정과목은 전공과목과 유사하거나 교양과목도 유사과목시 담당교수에게 부탁해 학점을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며 세부사항은 조경중이다.

일본대정대 유학생 선발

국제부 (부장=이원우·정보관리학)는 일본 대정대학교 유학생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10명이며 유학생에게는 학비면제와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숙소는 학교와 두시간 거리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무료로 생활하거나 동경에 있는 학교근처에서 자



제27대 총학생회 해를 마당이 지난3월과 4일 만해광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앞마당인 새내기 한마당중 사범대 새내기들의 땀겨울 장면 (박대용 기자)

“발전 논의를 마련·학생부담 최소화” 등록금 재협상 자리에서 학생측 요구

지난 3월30일 등록금 7차협상이 서울캠퍼스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선 등록금 사용내역중 지정인건비와 건설기계정부 등이 논의되고, 지속적인 학교와 학생측의 논의의 틀 마련 및 경주캠퍼스 교육환경등이 주요 안건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이날 7차협상은 경주캠퍼스에서 지난 3월25일 진행된 6차협상의 연장으로서 6차 협상때 학생측이 제기한 △등록금 책정에서 학생측의 부담을 최소화 △재단이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할 내역에 대한 대안 마련 △경주 신입생에게만 적용된 실질 인상률 17% 철폐 △현행의 학과통합과 학과통합이 아닌 신설학과와 발전방안 마련 △경주 자치

권 확보 △학교, 학생간의 논의의 틀 구성 등이 논의됐다.

6차협상때 학생측의 제기한 해교측은 △경주 신입생 17%인상은 서울·경주 차등을 없애기 위함이며 △학과와 통합은 전면 백지화상태에서 부리가 같은 과에 한해 반영 시키겠다는 대답을 했고 7차협상에선 6차협상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다음 협상으로 미루었다.

경주캠퍼스 교육환경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7차협상은 경주학생측의 △2% 환율 △실습공간 확보 등 교육공간 확보 △자치권 확보 문제 제기 등에 대해 학교측이 △2%환율은 불가 △최대환율로 현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불교이동학과 실

습공간인 유치원 건립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것을 밝혔다.

또한 서울학생측이 제기한 지정인건비 내용에 대해 학교측이 재단에서 45%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 이후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교육환경 개선 부분문제에선 서울에서 결정할 수 없고 경주 관련부서에서 재안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히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논의의 틀 구성부분에선 '논의의 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하지 못해 다음 협상 자리로 넘겼다.

8차 협상은 오는 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리수 심목일 (心木日)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닌듯 영하로 수온이 내려갔다고 한다. 꽃샘 추위인가. 시새음은 자연에도 있는지 봄꽃을 바로 보내지 않는다. 저중스럽게 추위는 찬바람을 불러내 자연스런 더위가 저만 뜰 멀리 가버렸다. 아니 그 뿐만이 아니라 봄이 오면 산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의 산하가 늘푸르게 되어가고 있는 즈음이다. 그런데 왜 영풍이 이렇게도 많이 불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지난 3월 마지막 휴일로부터 지금까지 산발이 발생한 화재가 30여건에 이르렀으니 수난치고는 대단하다.

심어 기르는 일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런데 한식전후로 하여 성묘하려는 사람들의 심화로 수십년 묵힌 나무가 불바람에 시달리게 되고 쓰레기처럼 인화한 실수로 말미암아 마을 인근산림을 황폐하게 하니 사람의 실수가 무서운 것이다.

자연의 재해는 인간에 의하여 비롯된다. 어떤 경우는 자연스스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불가항력으로 풀 수 없다. 그러나 성묘일이거나 성묘로 빙자한 산불재화는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할 운명공동체이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연이 가장 자연스런 환경으로 장엄되면 그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

자연이 싱그러운 산림으로 울창하면 바람도 맑고 삼삼하고 생생한 염록소를 공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심는 것에만 열중하지 말고 기우어 길러내는데도 인간됨을 쏟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심하나 방화를 저지르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자연은 무엇이든 대항하지 않는다. 사람이 심으면 심은대로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순수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람이 불지르면 어쩔 수 없이 불타야 할 운명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말뚝하고 저항하지 않는 저 산하의 나무들에게 우리는 사람의 대회를 오래히 하면서 자연의 순수한 자태를 배워야 한다.

우리 식목일에 나무심는 마음과 나무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심목일(心木日)이 되어야 한다. 몸과 맘이 하나이면 사람과 자연이 하나이다라는 신토불이(佛土不二)를 그 불타는 산불을 보면서 가슴에 아로 새겨야 할 것이다.

목정배
불교대학원 원장

- 인사이동**
- △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 본부장=한태식 (신학) △경영관리연구소장=차수현 (경영학) △농림과학연구소장=김용욱 (식물자원학) △사회과학연구소장=김진철 (정치외교학) △해외개발연구소장=전창원 (무역학·유인) △학생생활연구소장=심익실 (행정학) △지역발전연구소장=유병기 (생명자원경제학) △안보연구소장=강성원 (행정대학원·유인) △산업기술연구소장=이문보 (건축공학·유인) △공간행정연구소장=이황우 (경찰행정학·유인) △자연과학연구소장=성용길 (화학·유인) △한국문화연구소장=홍기삼 (국어국문학·유인) △사회조사연구소장=손준규 (사회학·유인) △교육문제연구소장=정진환 (교육학·유인) △지역환경연구소장=오홍석 (지리교육·유인) △유류문화 연구소장=백봉흠 (법학·유인) △회계문제연구소장=김진제 (경제학·유인) △생명과학연구소장=윤주연 (식품공학·유인) △선학연구소장=최창술 (신학·유인) △불교미술문화연구소장=문명대 (미술학·유인) △반도체연구소장=홍치유 (물리학·유인) △일본학연구소장=신용태 (일어일본학·유인) △신라문화연구소장=김갑주 (역사학·유인) △사찰조경연구소장=홍광표 (조경학) △한의학연구소장=김길철 (한의학·유인) △의학연구소장=고복현 (의학)
 - △영남지역발전연구소장=박준환 (행정학·유인) (이상3월15일자)
 - △계산고시학사 사감=이순용 (법학) (이상 3월16일자)
 - △회계사반 지도교수=윤종안 (회계학) (이상4월1일자)
- 홍사재행**
- ◇입수습기자
 - △김희동 (문과대 영문1)
 - △한상용 (문과대 일본1)
 - △서상훈 (인문대 국사1)
 - △허민희 (인문대 사목1)
 - △김정은 (인문대 고미시1)
 - △조인성 (자연대 가교1)
 - △김성애 (상경대 경제1)
 - ◇홍사재 국장 (BTN)
 - ◇이만 교수 (불문대 불교학과)



도움의 전화 개설 안내

교·직원 선생님께서 겪고 계시는 불편한 점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드리고자 도움의 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나 학교발전을 위한 제언이 있으시면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3014 (외부: 260-3014)
FAX: 260-3694 (24시간 이용가능)

동국대학교 총장

4·19기념 제26회 동국인 등산대회

4·19를 기념하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제26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1995.4.15(토) 09:00-17:00
- 장 소: 북한산 (4·19기념탑→대동문→북한산장→위문→하루재→도선사)
- 대 상: 전 동국인
- 내 용: 4·19기념식, 등산대회, 장기자랑 및 시상식
- 구 성
 - 가. 4인 1조 (학과, 동아리, 동문 등 자유 편성)
 - 나. 학과 팀 (교수 및 학생의 각 50%이상 참가 학과에 한함)
- 시 상
 - 가. 최우수상(1조), 우수상(3조), 자연보호상(2조), 장기자랑상(5조)
 - 나. 특별상 (참가율 최고 학과 지원상)
 - 1) 상금: 1백만원, 50만원, 30만원
 - 2) 학과 구성원 (교수, 학생)의 각 50%이상이 참가한 학과에 한해 지원.
 - 3) 참가 신청과 심사는 별도로 하며, 대회운영상 시상 대상을 한정할 수 있음.
- 접수기간: 1995.4.3(월) - 4.14(금)
- 접수처: 학생과(본관3층, 전화 260-3048), 산악부(중앙도서관 지하)
- 조장회의: 1995.4.14(금) 오후 3시·중강당
- 기 타: 참가기념품을 제공하며, 점심 도시락은 개인 지참할 것.

1995. 4.
학 생 처 장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 260-3491-2 (0561) 770-2057 하이텔 (ID: 2603491, press11)

“목적사대 사수하여 참교육을 실현하자” 사대폐지론, 사범 교육 본질적 의미 간과한 것

근래들어 교육개혁이란 명목하에 불어 닳친 학부제 도입과 유사학과 동폐합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학부제란 학문 구조의 재 조정을 통해 대학의 개방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겠다는 다분히 발전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학문 구조의 명확한 분석이 없는 학부제란 단순한 행정편의 위주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교육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국가임을 바라보며 국가의 책임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진정한 교육 개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이 말을 명제로 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바로 서서 조국의 미래를 밝혀 나갈 수 있도록 천 백 학원인 사대, 일반 동국인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적 사대 사수하여 참교육을 실현하자!" 일현점 (사범대 국교과)

TV바로보기 다채널시대 무분별한 시청자제해야

현재 들려오고 있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범대의 폐지론 역시 사범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를 간과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사범대의 의대, 법대, 사관학교 등과 더불어 특수한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다사범대학 교사를 양성하는 목적이다. 국어를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국어교육과와 국문학과가 어떻게 유사화될 수 있겠는가? 교사란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사회 각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사회 개척자가 바로 교사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바로 서서 조국의 미래를 밝혀 나갈 수 있도록 천 백 학원인 사대, 일반 동국인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적 사대 사수하여 참교육을 실현하자!" 일현점 (사범대 국교과)

투 고 시

자꾸만 떠오른다 해 뜨기전

능산리 교부군 었을 양초 전년의 죽은 혈통인듯 견고 있을때 보이던 나무 한그루 안개속에 막 쏟아지듯 이제 제맛을 마무리하는 옥잠같은 달을 이고 그건 다른 연대를 위해 패잔한 여왕의 머리채 모양이었지 아니면 긴 산고 끝에 일출되고, 눈 바를뜨고 시체로 굳어 버린 봉건 빈민의 어머니거나 바람 한점 일지 않았는데 나무는 폭풍속에 서 있는 것 같았네 돌아보면 차츰 어둠은 경계를 내어주고 각고의 능선을 살아오며 그대도 질긴 항일성으로 무수히 추수를 내뿜는 함성의 역사가 있네 무덤옆에 그려, 무덤옆이었네.

백 승 현 (성경대 국제경제학과)
박 준 형 (문대 불교학과)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불교병원’ ‘제3캠’ 지속적 관심요구돼

지난호(제1170호) 동대신문에는 몇가지 아쉬운 점들이 나타났다.

먼저, 1면 머릿기사를 보면 앞으로의 동국발전의 향방을 짚는 중요한 기사가 실렸다. 불교종합병원 건립과 제3캠퍼스 이전이 그것인데 이는 일반 동국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인만큼 신문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자세히 다루어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두번째로 신설학과 문제점에 관한 기사이다. 신설학과 문제에 관해서는 3월초부터 계속적으로 학내에서 언급돼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동대신문에서는 뒤늦게 실린듯하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이므로 신문에서는 이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다루어 올바른 해결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세번째 학내보도면의 교원학생 현황에 대한 기사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교원학교, 학생수, 방법 등 더 많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런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알찬 기사들의 모음이었는데 특히 문화면의 "탈수습기"는 신문을 보는 학생들에게 신문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 돋보이는 기사로 보인다.

앞으로의 신문에서는 좀더 심층적인 면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 (불교대 불교학과·본사모니터) 이효원

비판보다 의견수렴필요

지난호 동대신문(1170호)에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란

는 "사전에 글자가 가려져 있는데... 해명이 있길 바란다"라고 그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170호에서는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제3면 논설면의 "신설학과 문제점을 진단한다"는 기사의 내용도 좋고 학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요즘의 시기에도 적절할 것 같아 동대학생이라면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7면 경우보도에 식비인상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학복위에서 수렴하지 못한 학생의 의견을 비판만 하지 말고 신문에서 수렴했으면 어떻게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8면 문화면에는 대학문화에 대해 '포스트모더니즘적 사문문화'로 써 놓았는데 아직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사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더욱더 노력하는 동대신문이 되기를 바란다. (불교문화대 불교학과·본사모니터) 김성원

동/문/칼/럼

90년대 '2층집'은...



목적 아파트와 후문 사이에 막 걸리집이 하나 있었다. 우린 그곳을 '2층집'이라고 불렀는데, 2층이라고 해봐도 천정에 사람 하나 간신히 드나들만한 구멍을 뚫고, 지붕 밑에 낮고 비좁은 방을 셋을 뒀었다.

우린 수직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쭈뼛쭈뼛 노기를 찡그려 안주 없는 막걸리를 몇 잔잔잔 마셨다. 캄보, 보들레르, 브루통 같은 지난 세기말의 칙칙한 풍조나 당시 유행하던 바슬라르의 미학, 김춘수의 무의미시 등이 주로 화제에 올랐었고, 고등학교 시절 유신헌법을 달달 외워 대학에 들어온 우리들은 군사문화의 아들답게 늘 치고박는 싸움으로 승자 리 꼴을 냈다.

그때가 70년대였다. 점점 물을 들인 군복바지와 야전침대를 구해내고, 파고진 이룬이던 무엇이든 선호하던 우리의 그 격렬하던 절망과 고통의 몸짓, 장발에 비듬을 허열개 없고 술집을 기웃거리던 그 방황과 알 수 없는 분노가 결국 시대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80년대가 오고 나서였다.

에도 남아 있지 않다고 대답하는 듯이 보인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모두 자신의 시대에 아들 들일 뿐이다. 그러나 그 시대를 정면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면 그가 속한 시대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 울광로 삼척평 서로를 녹여 순도 높은 감칠을 만들어내는 장소는 있으리라고,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곳이 2층집 같은 곳이 아닐까?

지금 나는 홀몸거머리 90년대를 엮고 있다. 나로서는 오르기 힘든 가파른 계단을 올라 90년대의 지붕 밑에 좁지만 격렬한 이 시대의 정면을 마려운 후배들에게 있을 것이다. 40대에는 그런 후배들에게 기꺼이 끌려다니는 영광을 누리길 바란다. 정 광 호 (시인·국문 85월)

동 / 약 / 광 / 장

목errick

- 축하합니다
 - 상규아! 스무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 EUREKA
 - 영식, 동석, 민우, 윤주 '동국'교 지법집위원회에 합격한 것을 축하합니다.
 - 4월4일에 생일인 석규가 이번엔 잘 들러 군대에 간대요. 많이 축하하고 위로해주세요. - 동돌
 - 동국서도회 전시회 무사히 마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세요. - 1004
 - 불교대 동아리 '보살상상연구회'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이쁜 재경이
 - 법대 95의 귀염둥이 경범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미래
 - 지은, 관중, 현아, 은경 길과의 만남을 축하합니다. - 경제 91선배가

- 새로운 사회연구회 발대식을 축하합니다. - 학생회관에 있는 선배가
- 연등회 개장을 축하드립니다. 연일 하나하나에 사랑과 희망을 담아 소외된 이의 가슴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 어느 불자가
- 주영이형, 생일축하해요. 형이 목표하시는 CPA이 꼭 합격하세요. - 후우회임원단 일동
- 4월3일 국문과 경연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천사표인' '소!' 항상 새로운 날이길 바라봐... - 푸름
- 국예술연구회 그 어렵다는 audition에 합격한 신입생8명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 보석
- 수고하셨습니다
 - 지교95 답사 잘 다녀왔나? 답사도 다녀왔으니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되는 지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호야
 - 구도부장님, 여기치고 저기치고 고생 많았어요. 우리 열심히 하죠. - 학술부장님
 - 새내기 잔치와 축하해오름식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분

- 제17대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백상응원단 하이팅! - 백상OB
- 은영, 금순, 선미야 울 한해도 보람있게 잘 보내라 너희를 사랑한다. - 은혜
- 환영식 다녀온 상용, 희동이 수고 많았어. 앞으로 재밌고 보람차게 잘해보자. 그리고 희동 상용이, 상훈, 민희,정은, 인선, 성애야! 제 37기 수습기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동대신문사 기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자! - 동대신문사 정기자 일동
- 경남 양산인을 만나고 싶어요. 향우회를 만들자구요. - 95교육학과 영
- 사학과 93지회에게 지희야 우리 향우회하자. 빨리 날아서 연락해. - 회계93이
- 그리고...
 - 화공93 고현길군의 임대를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 좋은 two친구

- 병욱이 선배 생일을 축하해요. 선배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무궁한 발전이 있을것 같네요. - 95 WOO후배일동
- '미션아!'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진짜 진짜 잘 살아야 한다. - 친구미리가
- 수고하셨습니다
 - Newswek M.T 정발 재미있었습니다. 모두들 좋은 추억 되었죠. - 93예쁜누나 둘이서, J.H
 - 석운아! 오늘 혼연소에 들어갔었구나! 열심히 살기를 명복을 빈다. I Love You! - 94S
 - 영화 모임 소년비... 영화해 하시느라 수고를 많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 休
- 알립니다
 - 농구동아리 '루키'가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조단 우승우
 - 진해 사람들... 우리도 동문회 만듭시다. - 진해에서 울리는 철학과 95

은방골

- 축하합니다
 - 너무 너무 사랑하는 D·K·B·S 가족 여러분 세시 맞으시길 축하드려요. - D·K·B·S 영원한 팬
 - 박해정 대위님! 잔술을 축하드립니다. 가시는 곳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 학군단 조교일동
 - 사랑하는 선배님들... 생일축하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 그리고 진심으로... - 해연선배에게 95순원이가
 - 95학번 새니들이 입학 축하하며 M.T대 만나자. - 관경선배가
 - 실천 사복의 추구부 '거발웃'의 파이팅을 바라봐. - 이쁜씨

- 그리고...
 - 경제학도 여러분! 상경대 체육대회에서 꼭 우승하세요! - 경제학과 새내기
 - 단체 체육대회 우승은 우리것이다. '하이팅' - 고미사 일동
 - 항상 사랑하는 화랑선무부 동기들! 신입 부원을 반갑구요! 열심히 사세요! 선배님들도 만수무강(?) 하세요! - 8기 예쁜정미
 - 멋있고 귀여운 주원S 수업도 잘 듣고 열심히 생활하길... 94학번 답게... - 이름없는 여인
 - 자유 일어일문 여러분! 좀더 가까워지시다. - 영산·신혜
 - 보영은 경+진 속+은 육+현 이+유 경+진 미+미 영=자칭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는 영원하다. - KMH
 - You-lose의 새끼들 하이팅! 그리고 사회체육학과(이름모름)님 지켜보고 있어 - Y.S
 - 즐-준-위에게 한마디!! 자보는 자보대로 총동창회비는 어떻게... - 국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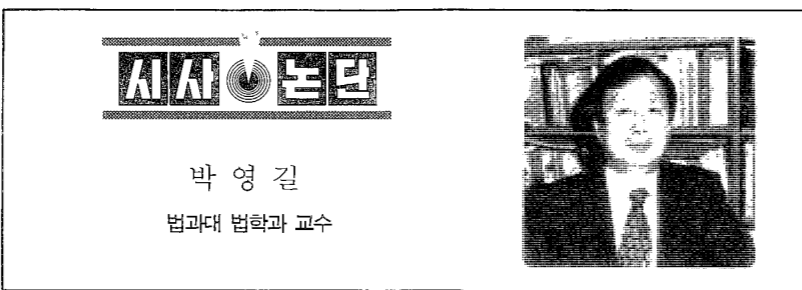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과제는 무엇인가

디지털시대 따른 새로운 보호제도 확립 필요

오늘날 선진국의 무역형태는 유체의 상품무역에서 무체의 지능적 산물인 기술무역으로 그 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WIPO 등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 조약의 체결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WTO 협정의 타결로 인한 UR/TRIPS 시행에 따른 저작권법의 개정과, 베른협약의 가입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와서, 언어, 음향 및 영상을 재생,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은 저작자나, 그 저작물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을 Howard B. Abrams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창조나 전달의 방법을 개척하고, 그것은 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틀을 만든다"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수단의 급속한 다양화는 저작권 혹은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저작권의 문제는 일면에 있어서는 국제적이면서, 타면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것이다. 따라서 첫째 문제는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저작권법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저작권법의 개정문제와 둘째 저작권법의 입법체계의 재정립문제이다.

첫째,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WTO협정을 우리나라가 승인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 즉 UR/TRIPS협정에 따른 통일된 국제보호기준의 제정과 베른협약(문학,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과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에 가입할 경우에 제기되는 우리나라 저작권법과의 충돌규정의 개정문제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예컨대 베른협약에 가입할 경우 동협약 18조(원칙적인 소급보호) 규정 준수문제를



박영길
법과대 법학과 교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혹은 미국 WTO 이행법안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등을 연구 검토하여, 아직도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저작권의 보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법체계의 재정립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역사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200호)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그후 1957년 1월 28일 저작권법이 제정 발표된 이후 1980년에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저작권법의 입법체계는 기본적으로는 대륙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저작권에 관한 세계적인 흐름은 두출기의 큰 조류가 소용돌이 치며 격렬하고 있다. 즉, 그 조류가운데 하나는 영미법의 흐름을 따르는 copy right approach로서 저작권의 본질을 Copy Right라고 하여 저작권을 copy하는 권리로 보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유럽 대륙법의 흐름을 따르는 author's right approach로서 저작권의 본질을 Author's Right라고 이해하여, 저작권은 저작자, 즉 Author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가지의 조류는 국제적으로는 예컨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같은 지적소유권

에 관한 국제기구나 조약에서 다양한 형태로 격렬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저작권에 관한 입법체계에서 각기 상이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의 본질을 Copy Right라고 이해하여 Copy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영미법에서는 1709년의 Queen Anne 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출판자에게 일정기간 독점사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국왕의 권한에서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의 저작자의 보호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author's right approach의 방식은 저작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법은 프랑스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왕에 의한 출판특권이라는 왕권이 배척되어,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의 정신적 소유권으로 본 것이다. 이는 author라는 개인이 그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라고 하여 그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 감정, 그리고 인격이 개체화 되어 있다는 인식하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저작인격권은 author's right approach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copy right approach에서의 Copy Right는 저작권의 본질로서 당연히 저작자의 인격권이 수반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레코드, 방송, 유선방송프로그램 그리고 인쇄 배열과 같은 것은 저작권의 본질을 Copy Right라고 이해하고 있는 영미법에서는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본질을 Author's Right로서 파악하고 있는 프랑스법에서는 이를 저작인격권으로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그 도입 문제로 수년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소위 복제보상금 문제도 세계적으로는 영미법적 발달과 유럽대륙의 그 법제사과 방법의 상이에 따라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은 전통적으로는 저작자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권리로서 사권인 것이다. 따라서 권리가 관리될 필요가 없을 자유가 있으며, 또한 타인이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저작권은 허락권으로서의 성질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허락권은 녹음, 복제기기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인하여 개별 허락제도가 포괄허락제도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방법도 변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은 아니라고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발상에 의한 저작권 보호제도의 확립이 요청된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도 저작권의 본질을 Copy Right로 볼 것인가 아니면 Author's Right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하고, 관례에서도 또한 이를 정립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 일반인들로 하여금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하므로 저작권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저작권의 세계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하는 것이다.

7차 세계 무역협상 성과는 무엇인가

문제제기 위한 난상토론의 장

학교·학생간 지속적 논의의 틀 생길듯

4월8일은 1학기의 1/3이 되는 날이다. 이날까지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미등록자로 제적당하게 되어 내년도에 재입학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학교에서 정한 등록기간을 넘기고 학사일정의 1/3이 되는 날까지 등록금납부 거부운동은 벌이는게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이용되고 있고, 본교 역시 이에 관습하는 상황이다.

이제 8일까지 다섯손가락을 다 꼽아도 모자란다. 밖을 돌아보면

여기저기서 등록금문제를 매달지어 놓고 '학교발전'이라는 큰 깃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을 돌아보자. 우리 역시 그런 상황인가?

뒤늦은 출발

지난 2월20일까지 다섯차례 계속된 등록금 협상은 학교측의 일방적이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지난 3월25일 6차협상이 이루어졌다. 등록금협상은 총장선거 등의 제반문제로 예년보다 한달여 늦게 시작됐으나 "몇%를 올리고 내리는

나"가 아닌 "등록발전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하나"란 큰 틀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5차협상동안 학교측은 학생측이 요구한 자료를 숨김없이 제출했고 학생측은 '등투소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대학중합평가대비를 위해 교수총원, 교육시설비 투자와 물가인상률을 근거로 15%인상된 등록금의 '과다책정'을 지적했다.

끝나지 않은 논의

6차협상 자리에서 학생측은 △ 등록금정책에서 학생측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 학교통폐합, 공간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 △ 교육환경·학생복지 개선 △ 신선편과 발전방안 마련 △ 학교, 학생간의 논의의 틀 구성 △ 경주 자치권확보 △ 경주교육환경 개선 등의 문제 제기를 한 후 학교측 답변을 듣고 7차협상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했다.

7차례 협상을 거치는 동안 우리 손안에 쥐어진것은 무엇일까?

새 총장이 취임하고 부총장 및 각 처실장이 새로 임명됐다. 학생측은 '방중 등록금협상 보고 및 등록금 투명 승리를 위한 1만명약 다짐대회'에서 등록금 협상 재개를 학교측에 제기했고, 지난 3월25일 경주에서 1차협상과 다음없는 6차협상을 시작했다.

다시 진행되는 협상

그러나 재단이 책임자야할 부분인 임상교수의 임과 건설기계정(건설신축비용)에 대한 사항등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전처럼 맞붙어치는 식으로 들고 돌리는 협상자리가 되었고, 등록금고지서 발부로 더 이상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등록금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동안

연행중사다시피한 등록금환불도 올해엔 없었겠다. 속시원히 화과 통합문제나 공간, 학생복지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다. '등록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최소한의 잠을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다.

계속 뒤바뀐 협상체제를 속에서 전체라기보다 각 개인집단의 앞가림하기에 바빠 난상토론이 되어버린 '등록금협상'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비판적이지 않은 않다. 학교와 학생의 계속적인 논의의 틀이 생길 것이다.

이제 더이상 문제제기를 위한 협상의 자리가 폐쇄 안된다. 이번 등록금협상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매듭짓고 진정한 '등록발전'을 위한 토론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곽주영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국내건설업의 세계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4회 삼성「건설논문상」현상공모

삼성건설은 건설분야의 기술력 향상과 저변 확대를 통해 국내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국내 및 해외 유망중인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우수 논문을 폭넓게 공모합니다.

응	모	요	강
1. 참가대상 ● 국내 및 해외 유망중인 대학(원) 생 (95년 8월 31일 현재 재학중인 학생) 2. 응모기간 ● 1995년 8월 21일~8월 31일 3. 응모주제(8개 주제중 택일) ● 국내 건설업체의 바람직한 중장기적 성장모형에 대한 제언 ● 국내 건설업체의 선진 건설시장 진출 확대방안 (미국, 일본, EU 등) ● 국내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감리기능 정립 방안 ● 국내 협력업체의 "기본과 원칙" 준수 유도 방안 ● 국내 건설기술력의 원위적 분석 및 향후 바람직한 육성 방향(사공, 설계, 엔지니어링, C.M, P.M 등 각 분야중 택일) ● 국내 건설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공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 21C에 대비한 미래형 복합단지 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 ● CR에 따른 건설업계의 환경문제 대응 방안 4. 응모요령 ● A4용지 30~40매 내외 분량으로 워드 프로세서 이용 작성제출(원고용지나 학교편이 표시된 리포트용지는 사용불가) ● 원본 및 사본 2부씩 3부 제출 ● 제4회논문상 및 통장 은인선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시 5. 시상내역 및 수상자 특전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4명)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장려상(5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부상(시계) ● 특 전 -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일본 견학 기회(3박 4일) 부여 및 당상 인사 회담시 우대. 단, 해외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회담에 따라 국내 왕복 항공권 제공으로 대체 가능. - 해외 수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친목회를 결성하고 정기 모임 지원 및 회사와 유대관계를 갖도록 함. 6. 작품심사 ● 1차 : 삼성건설 자체 심사 ● 2차 : 삼성건설이 위촉하는 각 주제별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 입상자 발표 ● 1995년 10월 14일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8. 시상 ● 1995년 10월 18일(삼성건설 광명기법실) 9. 제출처 ● 우편번호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콘길타워빌딩 강남사서함 1450 삼성건설 기획팀(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전 도착분에 한함) 10. 기타 ● 수상자를 하지 못한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15만원) ● 발표자명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음 ● 국내외 저사 논문은 이용될 경우 반드시 원천을 밝혀야 함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삼성건설에 귀속되며, 출판권은 반환하지 않음. ● 해외 유망중인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건설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527-1740~4, 1836)			

SAMSUNG 삼성건설

사설

교육과 교육자의 도덕성

몇년전 우리는 전교조 교사들의 '참교육의 함성'을 생생히 기억한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을 실현코자했던 그들의 요구는 여전히 바람으로 남아있고 참교육의 명제는 아직도 풀어야할 과제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강조되는 이유는 비민주적인 형태가 교육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비리여부가 거론되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영석고의 파행적인 운영사태는 비단 영석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범원에 피소중인 안재란교장은 동국학원의 재단이사이자 동국여학사회 회장이며, 그리고 영석고 이사 5명중 3명이 본교 교수임을 감안할때 본교에서도 전혀 무관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동문교사가 14명이라는 점에서도 영석고의 문제를 일개 고등학교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영석고 현직교사 28명이 서명한 진상조사요서에 따른 그동안 영석고의 파행적 운영과 비리사실들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교사들의 탄원서 제출로 실시된 도교육청의 특별감사는 안재란교장의 사실 부인으로 더이상 진전이 없으며 안교장은 범원에 피소된 상태이다. 조속하고 올바르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 이 사건은 안교장이 사퇴했으나 영석고 대표교사 5명이 징계당함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하고 있어, 해결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8명교사가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5명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며 인사가 교장직을 내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안재란 이사에 대해 현재까지 재단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비교육적인 인사가 본교 재단이사라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안재란이사가 교육경력자로서 재단이사에 선임됐다는 사실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이지만 영석고의 물의 자체가 유감스럽게 여겨 질 수 밖에 없다.

안재란이사는 지난해 5월 2억원을 기부, 재단장학회를 설립했다. 재단이사라는 본교에 대한 기여도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안재란이사의 장학회설립은 매우 뜻깊고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러나 물질적인 기여가 비도덕적인 인격을 포용할 수는 없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다.

유능하고 덕망이 있으며 무엇보다 절실하게 동태발전을 고민하는 사람이 본교 재단이사가 되어야 한다. 재단이 인사원칙을 옳고게 세우려한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또한 안재란교장이 본교의 재단이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퇴진투쟁을 결의했던 학생회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코자 한다.

우리는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됨으로써 더 이상 동국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뿐이다.

중국만평

이영일

그놈의 테러 대응에...
생각보다 재밌는데

by 영



이창복
나라정책연구회

한달 가까이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둘러싼 여야 의결투쟁은 결국 이른바 '반반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비당파에서의 극적인 타협로 여야는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다. 의정사상 진기록을 남긴 여야 격전의 '드라마'가 다행스럽게도 합의타협이라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자택에 억류되기도 했고, 또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대통령이 축하삼배까지 드려진 법안을 여당이 다시 끌어고치기 위해 날치기를 시도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여하튼 장기간의 정국파행 끝에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것에 대해 그나마 안도감을 갖는다. 지방자치제는 흔히 의회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의 2대 지주'로 불린다. 우리 역사에서 지방자치제는 집권자에 의해 철저하게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다. 군사독재정권은 말할것도 없고 선거를 치른 뒤 집권자들은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해서든 '고사'시키려 갖은 방법을 다 썼다. 지자체 논의가 본격화된 노태우정권 이후 지금까지 실시 시기를 미루면서 무려 9차례나 편법안이 개정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여야가 4대 지방선거까지 법으로 못박아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는가' 보다했더니 김

총론—헌정세분석 통해 본 문제점과 향후 방향

적극적인 주민참여...정치적출세수단화 막아야

지역할거주의 변질가능성—참신세대 진출토록

영향정권 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던 끝에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들고 나오면서 지자체 '혁신'의 여사에 스스로 한 획을 보았다. 여기서 지자체 선거법의 몇가지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김영삼정부의 등장 이후 개혁과 통일이 지체되고 각종 민생현안이 붙여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는 집권중반기를 맞는 김영삼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중간평가라는 의의를 띠고 있으며, 1년전에 여야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강행한 의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야간에 난전을 벌인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 아닌 행정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방자치의 파산선고를 두고 여야 간에 설전을 벌이는 것도 이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95년 총선과 9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정권의 정권재창출과 야당의 집권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실시에 따라 몇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른바 지방화시대의 전면적개막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예상했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려가 되는 점은 한국민주정치의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는 지역감정을 최대한 부추기고 지역할거주의적 정치관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 그러한 경향성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독점적 권력기관과 지역할거주의에 균열을 가하고 지방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문화적 재편을 가할

수 있도록, 즉 지방선거가 기존 정치인들의 지역할거주의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새로운 세대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선거법상의 문제인데, 특히 이번 여야 협상안이 여당과 야당이 반씩 나누어 먹는 '반반론'이 되지 않지 않게 해서는 많은 보완조치가 필요한데, 여야 협상에서 합의한 기초의회에서의 정당공천 배제 제안은 공익적인 시민단체가 이 미러전 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사안이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기초의회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기초의회를 주민 각자와 공익적인 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의 장으로 만들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기초의회에 대한 공천배제는 결국 기초의회에 대한 여당의 독식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난 91년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정당공천을 배제한다고 반드시 여당독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바람직한 기초의회 구성은 주민의 성숙된 판단과 공익적인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여야 협상안이 여당과 야당이 반씩 나누어 먹는 '반반론'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독소조항의 개정 즉 단체장의 명령처분을 '목기'의 지도감독이라는 이름 아래 주무장관이 취소 정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의 폐지

및 시기규정과 관련한 정세 분석, 대중의 식화 및 조직화, 영예별 사업 과제 등 5대 목표, 10대과제에 대한 총노선 원안이 찬반토론을 거친 후 의결됐다. "조국 통일 투쟁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주동적으로 맞이할 것"을 밝힌 앞으로의 대응방향에서 '6.3 청년학생대회와 8.15통일민족대회의 성과적 개최' '남침화련의 대중적 강화를 목표로 두고 '평화형정 체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반외세 자주화 투쟁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건설, 지자체 선거 등에 적극 결합할 것과 화원자주화 사업과 관련, 민족대학건설을 추진할 것을 총노선으로 표방하고 있다. 한편, 21세기 진보학생 연합 측은 "총노선 중 중앙상임위원에서 실현을 위한 5대과제 중 '민중기본권 확보, 대학개혁 운동의 전면화, 한총련의 개혁과 혁신 분당50년을 통일시대의 원인으로 맞아 평화체제를 앞당기는 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이견없이 내놓았다. 제3기 한총련 출범식은 오는 5월초에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예정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서울남부지부 공동기자단)

사회단신

안채란이사 교장 사퇴의사 밝혀

교사5인 징계—학부모·학생 반발

본교 재단이사이자 총동창회 부회장, 여학사회 회장인 안채란 이사가 그간 영석고 사태를 책임지고 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안교장은 월급착복등 금전비리와 교사잡역등원·학사비리·교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등을 이유로 법원에 피소된 상태이다. 영석고 교사 33명중 28명이 서명, 도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고 감사를 요청, 그동안 감사를 실시했으나 안교장의 사실효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석고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륜을 통해 학교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윤갑교사등 대표교사 5인을 해임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여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영석고 학부모 30여명은 징계위원장인 김주필(용운 생활학)교수를 면담하고자 지난 3일 본교를 방문했다. 김주필교수를 만나지 못하자 본관에서 총장과 면담을 요구, 장오현 교무처장으로부터 "빠른시간내 김교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듣고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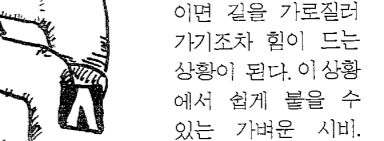


◇징계위원회를 요구하여 본교를 방문한 영석고 학부모들.

동학로 동문회 제모습은...

'O O 동문회 금요일 5시 만찬시' 'O O 과 철수, O O 과 선영, O O 과 동수는 얼골 좀 봅시다.' 'O O 고, O O 여고 동문회합시다.' 'O O 고, O O 여고 동문회합시다.' 동문회에 들어오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개과과 더불어 계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는 동문회 대자보이다. 대학에 갓 들어와서 어쩌면 과 선배들보다도 먼저 친해지고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 동문회라는 모임이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괜한 반가움만이 아니라 유대감과 결속감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동문회를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이러한 유대관계의 심화가 가끔씩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몇몇, 몇기를 따지는 군대식의 서열과 이성의 판단에 근거한 행동이 아닌 같은 집단이라는 이유에만 이끌린 집단적 행동. 이러한 행동이 표출되는 대표적인 것이 심심찮게 들리는 동문회끼리의 패싸움이다. 대부분의 시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기 마련인데 우리학교의 술마시는 공간이 탁트인 대로가 아니라 좁

은 골목길을 따라 있다는 것은 횡수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 특히 금요일 오후 술이 거나해진 한 때 거리의 학생들이 골목길을 꼭 메우고 서성 서성 이면 길을 가로질러 가가지 힘이 드는 상황이 된다. 이상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벼운 시비. 처음엔 한두 사람의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은 나중엔 엄청난 모욕제 집단 싸움으로 돼 버리는 것이다. 싸움의 장소가 교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도서관에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눈에 후문 바로 앞에서 두개의 동문회 패싸움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언술에 근거하여 느끼는 친밀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이 옮겨 작용하여 단결이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을 배척해 버리는 고립주의의 형식으로 나타나 폭력사태까지 불러 일으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행태를 지양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동문회 변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백드나 기자)



정대홍
(한총련의장 겸 대학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대회 취재기

의장 최초경선...정태홍군 9백2표로 당선

민족대학 건설등 10대 과제 설정

학생연합사업보고와 결정안건을 상정, 올해 상반기 중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한총련 의장선거가 최초로 경선으로 치뤄져 주목을 받았던 선거 결과, 총1천1백50표중 김성훈(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 2백37표를 얻었으나 정태홍(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한총련 임시의장) 후보가 9백2표를 얻어 제3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특별기구장에는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원구(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민욱(단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이 각각 출마해 임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됐다.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앙상임위원회의 상정된 '시무처 폐지 및 기획국, 재정국의 신설' 등 집행부 구성에 관한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제2기 사업평가

제3기 한총련의장 정태홍군은 "95년 민족화해와 대단결을 실현하고 김영삼 반대투쟁을 더욱 활성화하여 90년 이래 통일조국 건설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자"는 총기치를 밝히고 "조직내 정치적 이견이 분열로 치닫지 않도록 한총련의 통일단결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점이 되었던 사안중 하나가 한총련의 안전 상황에 관한 시행계획인데, 대의원 1/5이상의 연명을 받아야만 상정이 가능하며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래식 외 2백5명 대의원일동명의로 나온 안이 수중동의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배철호(한양대학교 안전배를 더 총학생회장)군은 "의사 진행 세칙 중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이 존재하므로 이조항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제2기 사업평가

21세기 에너지 - 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NEW ENERGY

"공중에 떠서 생활한다?"

우주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격영화는 더욱 아닙니다. 초전도체의 힘으로 공중에 떠 있는 자석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초전도 기술은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 미래 전력 유통기술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전도 미래도시는 어떻게 다가올까? 리니어 모터카가 도심을 달리고, 해안에는 초전도 선박이 물결을 일으키며, 사무실에서는 초전도 소자에 의한 초고속 컴퓨터를 사용하고, 병원에서 초전도 자석에 의한 MRI 촬영기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1961년 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무공해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을 물론, 초전도 발전기와 케이블, 변압기 등 미래의 전력유통 시스템인 초전도 기술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실용화를 목표로 획기적인 초전도 에너지저장장치 SMES(Su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완벽한 에너지는 없을까? 저회 초전도 연구팀은 21세기 뉴 에너지 창조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보다 깨끗하고 품질 좋은 에너지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961년 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무공해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을 물론, 초전도 발전기와 케이블, 변압기 등 미래의 전력유통 시스템인 초전도 기술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실용화를 목표로 획기적인 초전도 에너지저장장치 SMES(Su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MES 시험장면

초전도 연구팀
책임연구원 조영준
신원연구원 이원구
연구원 최인호, 안희복, 권영호

한국전력공사는 밝은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공사

◇ 송석구 총장 '21세기 불교의 역할' 특별강연

'불교의 세계화·세계의 불교화' 실현

향내적 모색과 향외적 실천은 불자의 사명

21세기에 당면한 사명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열마진 옴(6m) 진리교의 도교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은 경악과 더불어 오늘날 종교의 의미를 되새기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일본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일개 종교차원의 지역적인 부분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다.

신용중교정목가 웰 캔스웰드는 "사회적 단위의 활동은 서기 2천년이 다가옴에 따라 좀더 예측 불허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한다. 이렇듯 사이버종교의 범람과 또한 다가오는 정보사회속에서 종교로서의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21세기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송석구총장의 특별강연이 지난달 28일 동국관(L401)에서 열렸다.

불교대학원(원장=목정배·불교학)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약3백여명

이 참석하여 강의를 경청했다. 강연은 크게 '21세기에 대한 전망'과 '21세기에 당면한 불교의 역할'이란 두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강연 초점은 다음과 같다.

현대인은 21세기에 대해 열광적인 기대감과 불안한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 시대를 문명사적으로 진단해 볼때 전체 인구의 5%인 2백만명이 예비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으며 20만명이 영매보서 일종의 정신질환자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시대가 낳은 문명의 후유증이며 산물이다. 20세기 후반을 후기산업사회라 하면 다가올 21세기는 정보화사회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지금의 전통가치관의 변화가 예상되며 새롭게 신세대의 가치관이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시대는 늘 변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어야 한다.

21세기에 당면한 불교의 역할을 논하자

년 케인즈가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경제가 조화된다고 했듯이 이 세상은 연기의 이치로 운영되고 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불교에서는 불성(佛性)이라고 한다. 이 불성은 과학과 첨단정보사회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힘으로서 가능해라기 보다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다. 그것은 대경정의 세계이며 완성의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는 21세기의 세계를 불교화해야 한다.

세계의 불교화, 사회의 불교화, 극도의 불교화 과정이 불교도 앞에 놓여진 사명이다.

꼭 집어서 말하면 불교의 향외적(外向)모색과 향내적(向內)의 구도가 있어야 한다.

즉 세계의 불교화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는 향내적 모색과 향외적 모색을 병행할 수 있다.

향내적인 모색은 궁극적으로 자기현연



◇21세기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한 송석구 총장의 특별강연이 지난달 28일 동국관(L401)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서 송 총장은 "향내적 모색과 향외적 모색으로 세계의 불교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 그리고 그 방법적원리는 부처님의 교설에서 찾아진다. 예를 들면 '타인을 부처로 여겼고 칭찬하면 곧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며 '나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을 여겼던 자는 보현행원통의 실천 정신을 배우야 한다. 뒷 붙이려면 내면적 수행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처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향외(向外)적 모색은 사회적 집단적 실천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른 원용(圓融)교

신문망국론

30년 가까이 군사독재 아래서는 참으로 언론의 자유가 그리웠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신문들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호호 방방을 누리고 있다. 재벌기업들이 제마다 앓다부어 신문을 소유하면서 그런 경쟁에 돌입하여 정보를 왜곡하고 불필요하고 너털한 정보를 범람시키면서 독자를 우롱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게신아 출판 경쟁을 하면서 사실은 광고함을 대폭 늘려 수익 올리기엔 열안이 되어있는 것은 광고면의 단순한 계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하루 48면의 신문지면 가운데 60%이상이 광고로 채워지고 있으나, 이것이 이만하면 좋다고 이용하면서 독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동안 우리는 신문을 민주주의의 기둥이요, 사회의 양심이라고 대중의 박력이며, 민권의 수호자로 온갖 찬사와 존경을 받쳐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오는 한국의 신문은 처부의 수단이며, 재벌기업이 축적해놓은 엄청난 부의 배아 수단이며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차시한 무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언론이 겨우 4천만을 넘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인간신문이, 이따금 필요할 필요 것인가? 지극히 통해서는 자연의 호를 강조하는 신문이, 신문 스스로 불가치로, 영을 가치로 없는 지면을 개구 출판해서 독자의 손에 가는 조도 없이 끝장 폐지공장으로 들어갈까? 신문을 무한정 찍어내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자멸산미요, 지구파괴요, 핵전쟁이 아니겠는가?

폐지공장으로 직행하는 저 차시한 신문지 하루씩 천만여권 30년상 너무 몇 그루가 버려져야 하니, 절없는 신문의 횡포에 자꾸는 허부허부 벌개승이 되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조시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렇고도 몇몇 신문사들은 영등수 마온대보 광고료를 올리고 구독료를 올려 1년에 7백여억의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이고 보면, 이 나라의 저지 않아 신문폐쇄에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전사면의 60%이상을 광고로 채우는 신문이 우리나라 광고 또 어느 나라에 있는가? (방송작가 등록출판사 대표)

본사 동인들의 고정결합을 신선했다. '뜻밖의' 필름 필름의 옛 이름 '뜻밖' 즉 '선비'에서 딴 것이니 곧 '선비' 필름의 글씨'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독을 바랍니다. (원정자)

황 명(한국민원협회 이사장/국문 65쪽)
홍정광(방송작가 등록출판사대표/영문 64쪽)
윤범모(경원대 학과장/교수/시술 77쪽)
김태근(한국법정기자회 회장/국문 79쪽)
남 선(등록출판사(BBS)기자/영문 87쪽)

교수기교 **존속살인에 대한 범죄의식 분석**

살인동기...가족형태의 이해관계에서 비롯

해체된 우리사회의 인간성 회복해야

이상현
(사회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옛날 조선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 한 패륜사건이 일어나면 당사자가 일어났다하여 그 고을 수등은 즉시 파직되었고, 또 그 범인이 살고 있던 가옥은 불에 태워 그 곳에 연못을 파 패가(敗家)케 하고, 범인에게는 코에 끈을 꿰어매어 각 고을로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표시(標記)한 후 참수형(斬刑)에 처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패륜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온 나라 안이 어수선하다. 박완성 군이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적 악행에 대한 끝없는 재판을 받던 중에 이번에는 대학 교수인 김성복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하니 참으로 경악을 감추지 못할 뿐이다.

그가 아버지를 죽인 사연을 들어보면 연민의 정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는 수사관에게 "10명의 가족이 있을때 9명이 1명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잘못도 것이 아닌가"라고 한 말은 아버지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이었나를 생각케한다. 풍속에 잘못이 있으면 조카도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가 두려웠다고 한다.

그가 아버지 몰래 경정해온 H는수산이 최근 20여 여원의 빚을 지게 돼 자유압박이 심한데다 당장에 2억6천만원의 갚지못하면 회사가 도산될 처지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 압박한 상황에서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 놓고 이야기 못하고 사업의 도산 위기를 아버지께 죽여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그의 범행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사고로 인한 대외의 단결과 재산에 대한 열등감주의적 배급사상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목적 달성을 위한 욕구에서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도덕적 규범적 가치관의 몰락때문이다. 그의 같은 그의 패륜적 살인행위야말로 가장할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유야 어떻든 피해자의 가해자가 밀착한 혈육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그의 범죄 행위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패륜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존속살인의 용인은 아버지의 폭음, 이상성격 등으로 인한 가족화해가 원인이 되어 소위 자식이 존속살인(暴殺)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아버지의 권위를 중심으로 한 가족형태의 이해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정신의학자에 의하면 살인 동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간관계에 있어 매우 가까운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 한 연구

를 보면 살인피해자가 가족인 경우는 57%, 면적이 있는 경우가 31%, 면적이 없는 경우가 12%라고 한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정신적인 필요와 관측을 방해하는 적대적인 도전자에 게는 간절적으로는 없애려 하였으며 하는 데서부터 길게는 죽이고 싶은 무의식이 잠재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의 감정이나 증오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억제하지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만의 본능 충동을 제어 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다.

사람은 동물중에서 가장 출중한 반면 또 정의로부터 이탈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쁜 존재이다. 사람은 날 때부터 지혜와 덕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사람은 이것을 가장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베풀 것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무도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퇴기되기도 한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도덕성을 지니지 못할 때에는 패륜적인 악행은 계속될 것이다.

패륜적인 살인행위를 억제하는 길은 오로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러싼 정신병리와 가정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해체된 우리 사회의 인간성회복을 위한 도덕성의 함양이라고 생각된다.

◇'몽고어-만주어 비교 어휘 사전' 발간

본교 김형수 교수 20년 연구결과물

국내최초-한국어 계통 연구에 큰 도움

'몽고어-만주어 비교 어휘사전'이 본교 김형수(국문학)교수의 20년 연구결과로 국내최초 발간됐다.

몽고족, 만주족은 일찍이 우리민족과 인접해 있었지만 근본골격을 변화시켰던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나 중국어에 비해 많은 유사성을 가진다. 언어학자들은 같은 문화권 내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인접적으로 유사하고 언어인접적으로 많이 닮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찍이 서구학자들은 한국어를 알타이어에 포함시키고 만주어를 포함한 알타이어와 한국어를 비교한 바 있다.

그러나 단순한 어휘의 비교에 그쳤을 뿐만아니라 많은 오해를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런 오류를 없앨 수 있는 대차나 수수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임을 나타내는 문법적으로, 곧 접미사나 조사 법과 같은 것이 비교되어야 한다.

이에 김형수교수는 "만주어, 몽고어와 한국어 사이에 많은 어휘들의 분석을 통해 대차나 수수의 가능성이 희박한 많은 접미사를 추출하고 상호비교로 형태, 의미, 음운에 있어 모든 공통요소를 찾아내어 음운법칙을 수립하며 나아가서는 한국어의 계통을 밝히기 시작했다. 한국어의 계통을 밝히는 국어학계의 사명일 뿐만아니라 우리 민족의 과거이다"라며 몽고어-만주어 비교어휘사전 편찬계기를 밝혔다.

국내최초 발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대하는 몽고어-만주어 비교어휘사전의 특징을 살펴보면 스무리 말의 계통학이나 만주어와 비교연구에 참고할 만한 서적이 전무한 현실에서 필수적 유일타어인 서적이었다. 스관주어와 몽고어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였던 어휘를 총망라 대비시켜 우리 말과 비교분석 해석을 제시하여 그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스관주어사전이나 몽고어 사전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알파벳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만주어나 몽고어 중의 어느 하나만 채택하라고 그에 대비한 어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스몽고어-만주어는 그 언어를 모르는 이에게는 단락을 고려하여 광학-정형사태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된 음운 모두 그 음운을 밝히는 이의 참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등이다.

"이십년전 작업에 착수할 당시 젊은 나이에 파고도 단단했지만 작업도중 건강과 화트 입원까지 하게 되어 그동안의 작업이 몇수고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으나 다행히 병세가 나아져 보람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그동안 작업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국어학계나 알타이어학계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수 없는 영광이 되겠다"라며 발간 소감을 밝혔다.

몽고어-만주어 비교어휘사전 발간이 밑거름이 되어 국어학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송선영 기자)

입담 거천작가 '헨리 밀러'가 쓴 최초의 장편소설

밀러가 죽은 지 15년, 탈고60년만에 나온 'SEXUAL RESISTANCE'

Moloch

그들이 격렬하게 싸움을 치렀던 황폐한 토양은 다시 살아난 정열이라는 옥토로, 그녀의 몸은 한때 그랬듯 사랑스럽고 정스러운 배로 변했다. 서늘하고 순결한 살갗을 감쌌던 비늘은 어디론가 휘날려가고 벌레 같은 파도만이 일렁였다.

이 소설을 쓸때 헨리 밀러는 구걸을 했고, 그의 아내 준은 거리에서 몸을 팔았다.

속삭임 **하늘의 신부** **지상의 연인들**

로버트 올린 베키 지음/김영희 옮김 지노스카이 지음/서민수 옮김 지노스카이 지음/서민수 옮김
신국판/값 3,500원 신국판/값 6,000원 신국판/값 6,000원

남천 언제나 새로운 문은 여는 서고 전화: 2849-8928 272-3770 / 팩스: 277-1059

시청각 교육실 안내

1. 시청각 교육실 이용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단,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2. 시청각 교육실 이용방법
사진과 학생증을 지참하여 외국어 사무실(교수회관 2층)에서 대출증을 발급받아 자료 신청서 작성표를 받아서 시청각실에서 시청한다. (관의 대출은 금함)
3. 시청각 교육실 자료현황
영어, 일어, 독어, 불어, 중국어등 각종 외국어 테이프 및 토익, 토플, 영화 테이프등 학생들이 원하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가 다량 보관되어 있다. 특히 영화 자료의 구입은 기존의 Video Tape대신에 LD를 구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Dubbing 시 Caption(자막)을 첨가시키고 있다.
4. 95년 제1학기 새로 구입한 자료
Beauty and the Beast
Cocktail
Aladdin
True Lies
Speed
Beverly Hills Cop III
The Joy Luck Club
The Toeic Vedio
Listen and View
Communicative English Practice(audio tape)

외 국 어 교 육 원

공복시 음주, 40분이내 최고치에 도달

한번 마시면 3일은 금주해야

성낙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기원전 3천년경의 맥주 양조 기록이 이집트에 있다고 하니 술의 역사는 자못 길다. 술은, 이래로 수많은 사람의 슬픔을 달래 주고, 기쁨을 배가시켜 주고, 뛰어난 문화, 예술 작품의 탄생에, 인간관계의 개선에 일조를 하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런 반쪽을 비워둔 채 유행음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술은 위(胃)에서 30%가량 흡수되고 소장상부에서 대부분이 흡수되는데, 공복에 섭취시에는 40분 이내에 최고치에 도달할 정도로 흡수가 빠르다. 급성 알콜 중독 증상은 자제심 및 판단력 저하, 흥분 상태, 몽롱한 의식, 심할 시에는 혼수, 호흡마비가 가능하여 무호흡, 부지벌적 행위, 불

안 환각, 망상 등이 있을 수 있다. 만성적 음주에는 알콜성 간장해(지방간, 간염, 간경변), 알콜성 소화관 장애(식도염, 위염 등), 급·만성 췌장염, 신경염, 알콜 중독 증 등의 다양한 장애가 올 수 있다.

하루 10mg 정도의 알콜을 장기간 마실 시에는 심근 경색의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밝혀져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맥주 2백50cc(큰 컵으로 한잔), 소주 40cc(한잔 반)에 해당하는 양으로 말 그대로 약주에 해당된다. 에주가들이 이것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거나 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이라는 것이 자제력을 잃게 함으로, 술이 술을 먹게하여 과음이 되는 것이 다산사이니 음주의 핑계가 되는 것은 어렵다.

건강을 위한 음주법을 들여보며 첫째, 알콜의 중간 산물인 알데히드의 대사를 촉진시키기 위

해 콩나물국, 배, 복숭아, 사과 등의 과일이나 김, 두부를 포함한 콩과류를 같이 복용한다. 둘째, 흡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천천히 마시고, 빈속에 마시지 말고, 음주전 아이스크림이나 우유를 먹는다. 셋째, 호흡을 통해 많이 배출시키기 위해 담소를 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넷째, 간에 긴 지방제거 기간이 3일 정도 걸리기에 한번 마셨으면 3일은 쉬도록 한다. 다섯째, 첨가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 취할 수 있기에 섞어서 마시지 않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건강 음주법이 있는데, 알려진 것 같지만 가장 알려주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불교의 오계(五戒) 가운데 부음주(不飲酒)는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함을 경계할 일 것이라, 우리 동국인은 더더욱이 마지막 방법이 제일 좋을 듯하다.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최고의 요건 건강.

심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현대의 시대

교수에게서 들어보자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평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면 말이지
건강하지 않으면 고생도 할 수 없다.
힘있는 대학생활.

소량 마시면 심장병 예방 효과 있어

"취했다 싶으면 뇌세포 몇개 파괴된것"

신홍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앙기를 맞이하여 자의든 타의든 술잔을 마주해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늘상 주위에서 쉽게 대하는 술에 대한 막연한 이해로부터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혹은 건강에 유익하다는 변을 늘어놓기 보다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술에 대한 허와 실을 접근하여 봄은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술의 효능은 독성이 매우 강한 열성 식품이다.

모름지기 약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성질이나 독성을 적당히 이용하여 치료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분명 술의 열성과 독성을 적절히 이용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실제로 적당량의 술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기혈(氣血)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불안이나 초조, 불안, 불평 등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의학적으로 술은 심장병을 예방하고 소화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음주후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술의 열성에 의한 것이다. 한 보고에 의하면 매일 두세잔 정도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발작이나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전한다. 또 술은 미각을 예민하게 자극하여 타액분비를 증진시키고 위액분비를 일으켜 소화기능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이는 집안의 어른들이 식전에 한잔씩 곁들이는 반주에 담긴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러나 술은 알콜성 중독증에 매우 강한 유해 자극이 있기 때문에 위벽을 보호하려는 점액의 분비가 지속되면 만성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체내에 흡수된 알콜의 대부분은 간장이 분해에 관여하기 때문에 술은 결과적으로 간장에 부담을 증가시켜 지방간이나 간세포가 섬유화되는 간경변을 유발하기도 한다.

술은 일종의 마취제 같은 것이어서 신체를 통제하는 뇌세포가 영향을 받으면 지성이나 수치심 자제력 조화력 같은 고등 감정이나 기능을 마비시키고 동물적 본능이 발현되므로 판단력과 신체 반응이 떨어진다.

미국의 한 교수에 의하면 "기분이 좋 알뜰해 해졌다고 느낄 때는 이미 뇌세포의 두세 개가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이상 술을 마시면 1만개의 뇌세포까지 파괴되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대학에서 학문과 연구를 해야 하는 학생이나 교수에게 있어서 보면 뇌세포의 파괴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뇌세포는 재생되거나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극 두 편을 소개합니다

하나, 이디푸스의 여행



희비극 이디푸스의 여행은 이미 잘 알려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과 장정일의 '긴여행', 이 부가지의 텍스트를 한데 묶은 것이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을 지닌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와, 아버지를 찾아 기차에 무임승차하는 소녀와 목적이 없는 또 한명의 무임승차객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두 텍스트의 공통주제는 저주스런 운명의 첫바퀴를 돌고 있는 인간의 비극이다.

무대는 기차안인데 지방공원을 떠나는 배우들이 하나를 기차를 타면서 이야기 시작된다.

무임승차한 소녀와 사내는 기차 지방에서 만난 뒤, 육체적 관계를 맺고 그들을 쫓는 검표원을 살해하며 도망을 다니지만 마침내는 처음 만난 기차 지방으로 다시 도달하게 된다.

극중의 소녀와 사내는 어쩌면 옛날에 헤어진 부녀간일지 모른다는 암시가 흐르고,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같은 기차가 상징하

는 '운회'의 이미지가 극을 주도한다.

실현극을 주로 다루는 김아라가 연출한 이 연극은 4월 14일 서울에서 첫공연을 가진 뒤, 일본·베트남 순회공연을 가진다. 4월 23일까지 동승아트센터 대극장. 921-7165

둘, 청바지를 입은 파우스트



실현극장에서 공연하는 '오늘의 명배우 시리즈' 3번째 연극이다.

90년대 연극계를 대표하는 운주상, 윤소정, 장우리가 각각 파우스트, 그레첸, 베피스토로 분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괴테의 파우스트는 극의 뼈대를 이루고, 춤과 음악을 가미한 현대적 감각이 무대를 채운다.

파우스트는 대학교수로 등장하는데, 인생의 자리별탈환을 느끼다가 대학동기인 베피스토를 통해 슬픔마침이 된 옛애인 그레첸을 만나지만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자신의 명예와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던 파우스트는 결국 옛사랑과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극을 마친다.

무분별한 대중산업사회의 진입과 극도의 이기주의가 성행하는 풍토 속에서 전면적 회의에 빠진 현대 지식인의 자기반성이 극에 담긴 메시지다. 4월5일부터, 압구정동 실현극장. 515-7661.

(문화부)

◇최근 등단한 동문들

— 장영우·송희복·성낙주·심종선

동국문학 맥 잇는 역할 해내

본교 동문들이 문단에 대거 진출했다.

현재 극문과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장영우·송희복, 그리고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후 현재 청동중학교 교사로 복직된 성낙주(극문82졸), 부산 해운대문화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심종선(극문71졸), 이 네 명이다.

'94 문화일보 동계문예로 등단한 장영우동문은 '위선의 파란과 타자성의 긍정-송기원론'으로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됐는데, 비틀린 언어와 현란한 기교로 독자들이 쉽게 다가가기 힘든 송기원의 작품들을 대상

으로 그의 전기적 사실과 작품세계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탐색하고 "자기부정과 자기혐오의 왜곡된 과거와 거짓의 대면하기로 결집한"작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투서 신춘문예에서 영화평론 부문에 당선된 송희복동문은 이미 지난 9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이 당선된 바 있다.

작년한해 1백편이상의 영화를 감상하면서 얻은 고유한 영화 체험이 만들어낸, 평론, '헛개이거의 시작' '간장, 혹은 비극적 의장' '황토지' '변주변장' '패왕별희의 감독 헛개이

달 하나 천강에

코리안 드림과 세속오계



매년 1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과 'Korean Dream'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토론을 하곤 한다. 대화를 하다보면 모두가 American Dream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만, 막상 Korean Dream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을 다물고 만다. 대학에 들어와 나름대로 인생설계를 갖고 있을 학생들이 한국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이나 목표에 대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식인의 사회적 사명감이 우선적으로, 사회전체의 사상과 이념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할 수 없다. 꿈이 없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꿈이 없는 국가는 소멸하고 만다는 간단한 역사적 교훈에서 볼때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사회변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구성원의 사고나 가치관 및 미래에 대한 태도가 사회변화의 결정적인 힘인 것이다. 미국의 American Dream, 일본의 화(和)의 정신이나 무사도정신, 영국의 기사도정신, 독일의 게르만정신 등은 각국의 사회발전의 주된 요소로서 작용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발전의 힘은 한국사회를 장기적으로 이끌 가치나 이념보다는 빈곤의 극복이라는 생존차원의 몸부림에서 나왔다. 이런 생존차원의 가치와 사고는 빈곤상태를 벗어나면 방향상실과 함께 패락적이거나 이기적인 욕구충족으로 변질되어 사회를 혼란시키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한국사회가 선진화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사회(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좋은 일을 하여 공적으로 인정받게 된 사람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사회를 위해 봉사함에 따라 명예를 얻은 사람들), 세계를 향해 응징하는 사회(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과학자와 예술가들)를 Korean Dream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Korean Dream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자세로는 1400년전에 원광법사가 제시한 세속오계처럼, 사회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속속에서는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 친구들과는 신의를 갖고, 매사에는 성실한 자세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일단 일을 하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다는 생활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Korean Dream과 생활태도가 20년후에 한국사회를 이끌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뿌리깊이 박힐때 한국사회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며 영원히 비약해 나가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에는 따뜻한 봄날을 맞으며 Korean Dream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진정한 대화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박 병 식 법정에 행정학과

거의 작품세계를 문학적비평인과 영화적비평인을 잘 접목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제1회 상상문화에 '차크라바르틴'으로 당선된 성낙주동문은 대학 4학년때부터 이 글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꽃다'에 대항되는 의미, 즉 평범에서의 최고권력자인 '전통성왕'이라는 뜻을 가진 차크라바르틴은 '꽃다'와 비유리라는 인물을 통해 문학내의 동양정신을 복원한 소설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인도의 신화와 설화가 다양하게 소개된 이 소설을 쓰기위해 작가는 수백여권의 서적을 찾고 매달렸는데, 최근 인도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을 자신에게는 '축복'이

라고 말한다. '95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에 '설악을 다녀오며'로 당선된 심종선동문은 "발상을 뜻은 지녀야 한다"는 동양의 시를 잘 구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와 시조를 여러번 응모했다가 낙선하면서도 또다시 도전한 작가가 달과 꽃을 함께 담아내려는 시의 전통을 깊이있게 지키고 있다.

'나이들어 입산(入山)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꽃다'라는 말이 생겨나는데, 동문들을 보면서 '문학'이라는 그들의 '산'에 진달래 피고 철쭉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봄이 왔음을 느낀다.

(이유리 기자)

'95년에비군 교육훈련소집공고

- 1.교육대상: 본교 예비군 전원
- 2.교육대상 제외자
 - ◇'95년도 전역자
 - ◇'89.12.31일 이전에 전역한 사병
 - ◇'87.12.31일 이전에 전역한 장기하사 이상간부
 - ◇41세 이상의 간부(장교,하사관)
 - ◇사무직(조교포함) 및 기능직 예비군
- 3.교육시간: 8시간
- 4.교육일정(대학별)

4. 28(금)		5. 21(월)		5. 2(화)		5. 3(수)		5. 4(목)	
불교대	예수대	이대	과대	공과대	문과대	문과대	문과대	사과대	사과대
예수대	예수대	이대	과대	공과대	문과대	문과대	문과대	사과대	사과대
예수대	예수대	이대	과대	공과대	문과대	문과대	문과대	사과대	사과대

- 5.교육장소: 노고산 종로, 중구훈련장(제1905부대)
 - ◇구파발전철역에서 승차방향으로 300m지점에 학교버스, 수송협회버스대기(06:00~06:40분까지 운행)
 - ◇시내버스: 구파발 전철역에서 156번(북산산성→송추) ※156번중에 북한산성경유 승차행이 아닌 삼천리공원, 일영경유 승차행승승금지
- 6.복합: 예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부, 허리띠)
- 7.휴대품: 신분증, 주민등록증 지참(분실자: 학생증, 면허증, 동장분실확인서)
- 8.특별 (유의) 강조사항
 - ◆'95년부터 다음사항을 특별히 강조하오니 실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1.08:00 이후 훈련장 도착자 절대 입소불가(위병소 엄격통제)
 - 2.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부, 허리띠중 1가지라도 미 착용자 절대 입소불가
 - 3.학교에 잘 나오지 않아 공문을 보지 못했거나 교육일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는 해결방안이 되지 않으므로 예비군 신분의 재학생은 예비군 본부에 등록즉시 또는 광고즉시 의문사항을 문의바랍니다.
 - 4.'95년 예비군 기본교육은 교육소집통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게시판의공고로서 교육소집을 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5.해당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경우는 사전에 예비군 본부(전화 260-3072-3)로 신고 바랍니다.

1995.4

동국대학교예비군연대장

공 고

1995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위한 병무 상담실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래

1. 상담실 운영일: 1995년 4월14일(1일)
 2. 운영시간: 09:00~17:00
 3. 상담원: 서울병무청 공보실 직원
 4. 상담실 장소: 취업 보도실
- (본관 학생과 옆 사무실)

학 생 처 장

영화의 패러독스

단편영화 ② 영화제 수상작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감정 묘사 뛰어나

이번호에서는 그동안 파격적인 실험정신과 날카로운 시대 비판 정신을 보여주었던 단편 영화를 중에서 영화제 수상작과 일반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강의 남쪽 (장길수 79년 14분 16mm)
프랑스 문화원 토요단편에서 최우수 작품.

1980년 한강의 남쪽에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판자 선술집이 보인다. 고 샴에 쩌렁근부쨌음이 시작된다. 거친 영상의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

강아지 죽는다 (박광우 83년 11분 16mm)
청소년 영화제 우수 작품상, 프랑스 뽀빠두 기록 영화제 본선.

동대문 배구장에서 열리는 전국 투견대회를 투견들의 싸움과 구경꾼들의 편지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사회의 환경과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단순화되어지는 사람들의 조화없는 현실을 묘사.

청수의 취입시대 (김의석 84년 16분 16mm)
직업이 소매치기인 청수, 병기, 영배가 도시에서 벌이는 생활 이야기. 어두운 도시의 구석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하층 계층의 생활을 통해 그들의 갈등과 괴로움을 묘사.

백일몽 (이정국 84년 13분)
대한민국 단편 영화제 대상
살얼자인 주인공은 후속작을 기다리는 화장을 하고 귀족을 우회하고 우연히 술취한 사내가 떨어진 지갑을 훔치게되나 지갑에서

나온것은 구직광고와 이력서 뿐이다.

칸트씨의 발표회 (김태영 86년 30분 16mm)
제38회 베를린 영화제 영 포럼 부문 공식 초청작.

사건가는 도시의 인물들을 찍다가 어느날 칸트씨를 포착한다. 80년대 대격동하는 시대와 대립하다가 상처를 입은 젊은이의 현재와 이 젊은이를 둘러싼 여러 집단속의 인물들을 묘사.

그날이 오면 (장동희의 87년 13분 16mm)
베를린 영화제 영 포럼 부문 초청작

복학을 위해 대학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전경으로서 자신의 학우였던 대학생들을 탄압해야 했던 자신의 모습과 자기앞에서 고통을 당했던 이념교를 학생을 회상한다. 타의에 의해 폭력을 강요받아야 했던 전경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영상화.

인재를 인하여 (한양대 소나기 87년 45분 8mm)
87년 평범한 한 대학생이 사건조작을 위한 고문을 당하면서 절제된 인식을 가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다룬작품. 솔직하게 자신과 주변의 문제에 접근하여 전면적인 정치성을 과감하게 표현.

호모 비디오쿠스 (변학·이재우 91년 20분 16mm)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단편부분 대상
Homo (인) + Video (보다) + Cus (영용사형 어미) = Homo Videocus (보는 사람은 비디오적 인간형을 말하며 인간의 존재와 영상매체의

의 관계를 영상화, 독특한 형식이 돋보이는 작품.

와블 (애니메이션 서울무비 90년 5분)
프랑스 앙시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제 주목할 만한 영화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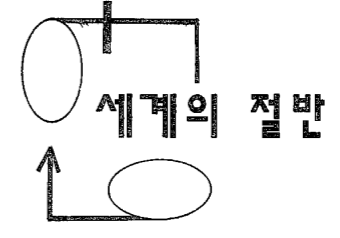
전남 화순 운주사의 외밭을 소재로 하여 외밭의 역사적의미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역사적 연대기의 단편적 사건들과 현재에서 미래를 담고 있는 한 소년을 통하여 보여준다. 우리 민중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

지하생활자 (김태영 93년 15분 16mm)
신영 영상예술제 장려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 같은 지상의 빛의 세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하실 방의 정전이라는 상황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

우중산책 (임승현 94년 13분 35mm)
제1회 서울 단편영화제 대상.
혼기를 놓쳐버린 한 노처녀의 이야기. 자기자신의 처지나 분수를 헤아리기도하는 늘 대하고 사는 싸구려 영화의 영향으로 인해 헛된꿈을 꾸며 산다. 감정묘사에 뛰어난 작품.



▷ 파격적인 실험정신과 날카로운 시대 비판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단편영화 중에서도 높이 평가받은 독립영화제작소의 '파업전야' 16mm 단편이며 비제도권 영화로서 탁월한 영화적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③ 혼자만의 방

울프의 '돈과 방'...

여성 정신적 자아위한 필수요건

20세기 초 뛰어난 지성과 정교한 기교로 유럽의 문단을 주도했던 블룸즈버리그룹의 일원인 버지니아 울프는 행동 지향적 여성주의자들의 신랄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대 여성주의의 대모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녀를 비난하는 여성주의자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경험도 그지없이 단조롭고 지라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간내해야 하는 가사 경험도 없는 귀족적인 율프가 어떻게 여성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울프가 '혼자만의 방'에서 제시하는 여성의 정신적 자립을 위한 방법론을 지극히 자아도취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성의 정신적 자립(여기에는 여성작가의 글쓰기가 문제되고 있다)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율프가 제안하는 '돈과 방' 배후에는 그녀의 쓰라린 경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 사실 '혼자만의 방'의 화자는 메어리 배런이지만 울프의 전기적인 면을 고려해볼 때 울프라고 보아도 무방한 듯하다. 문중계도 이주머니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아 평생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전 울프는 주로 봉투에 주소를 쓰거나 조화를 만들거나 혹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며 생계를 꾸려가야 했다. 정신적인 만족에 굶주려있던 울프는 여할 수 없이 해이했던 히드렛일에 심한 골육감을 느꼈으며 나아가 그러한 직업체제를 만들어 놓은 남성들에게 분노했다. 그러나 이주머니의 유산은 그 모든 골육감과 분노를 씻어줄 사자지개였고 마치 '새하늘이 열리듯' 자유를 누리게 했다.

울프의 경험 이후 거의 한세기가 흘러간 지금 여전히 여성 문제의 중심에는 경제적 확보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경우가 명백

히 보여준다. 동료 여성들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자신이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비정상적인 상황에 빠져있나를 분명히 알게된 그녀는 제일 먼저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침밥을 지어서 남편과 아이들을 먹여 내보내고 난후에도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던 집, 신적해 있는 집안일거리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을 숨길 귀족도 없는 타인의 공간, 하루에 수십번도 더 걸려오는 명령조의 전화들,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녀에게 배정된 복색 구석방에서 밤늦게 써둔 그녀의 글들이 어느새 증발되는 것이었다.

이 타인의 공간에서 떠나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과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울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일거리를 주는데 인색하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의 선택범위가 더욱 좁아진다. 이러한 상황들을 심사숙고한 결과 그녀는 동네 코흘리개 아이들에게 그녀의 집에서 가르치기로 했다. 자필로 쓴 전단을 아파트 입구에 붙이고 몇통의 전화를 받고 그리고 며칠후 동네 아이들에게 "그, 나, ...아, 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울프가 유치원생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듯이, 그러나 비참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 울프와 달리 그녀는 앞으로 갖게 될 '혼자만의 방'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참으로 오랜만에 자신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며 즐거워 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길 건너편 방한칸을 얻은 그녀는 어느날 아침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김애주 (문과대 영문과 강사)

대학문화

② 키치

지나호 (1170호)에서 언급했던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상문화와 더불어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든 것중 하나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한, 배제해야 할 것이 바로 '키치'이다.

키치는 대학 안에서서 키치보다는 오히려 대학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문화현상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이 '키치'에 대한 어원부터 정리하자면 1870년 대 독일 권리의 화가와 화상들이 팔던 값싼 그림과 조각상들의 주요 구매자이던 영미인들이 이것을 '스케치'라고 부르던 것에서 변형이 됐다고 한다.

현재는 이것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고급예술품을 모방한 값이 싸고 대량생산되는 '물건들' 즉 미적 대상의 문제들에서 이제는 미적 주체의 관련한 미적 태도나 미적 체험의 문제까지 폭이 넓어졌다.

학교앞 솔집과 커피전문점들이 모두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인테리어나 그것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하는데 주력하고, 단지 그곳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그곳에서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전스럽고 또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문화행위가 되어버렸다.

위에서 지적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보자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문화를 스스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가성과 환영을 추구하는 모습일뿐이라면, 학교 안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을 뽑아서 잔디밭에 앉아 서로의 고민들을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 (문화부)

메어리

대학개혁

▲각 대학들의 학부제 개편과 전형방법 및 다학제 도입 등 '대학개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연세대의 로스쿨 도입과 본교사제 발표를 선두로 10여개 대학에서 학제 변경, 무시험 전형, 학과 통폐합 등 각종 학사제도 개선안 등의 간파소연 학기운영 및 학사운영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대학입시의 기본틀을 바꿔 놓는 획기적인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난 3월30일 본교 승석 구충장은 등록금 차등제 및 예고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입학정원의 2%에 해당하는 98명의 학생을 놓여준 특례입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으며 불교종합영원과 일산 제3캠퍼스 설립기 획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밖에 작년부터 학부제 운영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로스쿨 도입과

조정이 끝나지 않은 검토사안들로 알려졌다. 특히 학과통폐합 문제는 타학과뿐 아니라 본교에서도 학부제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없어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혁은 주체도 중요하지만 개혁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을 학교는 단순히 피교육자로서만 바라보는 걸까. 현행 교육관계법령을 개선하지 않고는 실행이 불가능한 학사제도 개선안을 대학홍보 차원에서 경직적으로 발표하는 우리의 대학, 내실을 기하기 보다 단순히 '학사개편'이란 개혁을 통해 대학 선전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사립대학-어느 부분보다 민감한 교육제도가 소수의 대학 운영진에 의해 연일 항부로 발표되는게 안타깝기만 하다. (주)



서승현 (7)



POSCO 메세지 면학관

思想樓閣

교문을 나선 선배들이 남겨둔 텅빈 그 자리를 곳곳함으로 가득 채운 새내기들과의 만남. 계속 이어지는 향우회, 동문회, 환영회에 지쳐 늦게 들어간 전공 선택 수업시간... 강의에 열중하시던 노교수님은 불현듯 철관에 큰 글씨로 네글자 '沙上樓閣'을 쓴 뒤 창가로 몸을 옮긴 후 시신을 창밖으로 돌리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교수님은 철관의 글씨를 '思想樓閣'으로 고쳐 쓴 다음 어리둥절해진 우리를 향해 활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대학생활은 내일을 위해 열려 있는 공간이며 곧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의 문제보다 기초를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래가 아닌,思想的 터전 위에 미래를 펼칠 때 완성된 삶은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포항제철